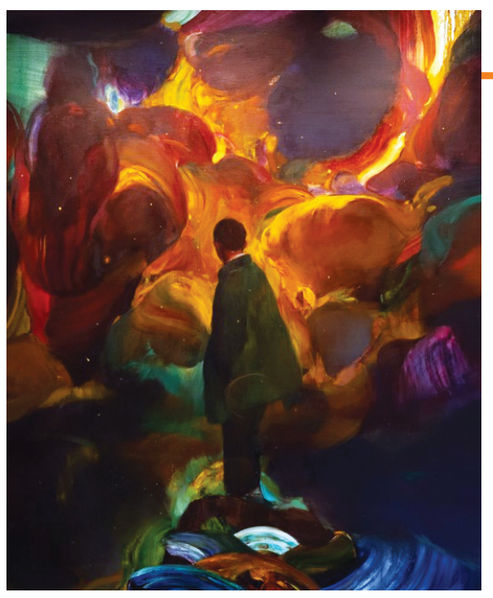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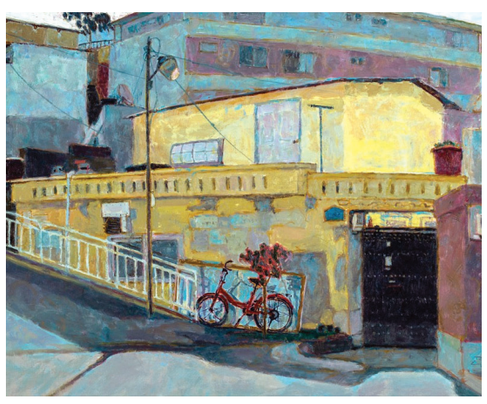
한희원·박성완·노여운·손지원·김용철…4월 1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김용철 작 '나의 고요'

박성완 작 '123국회앞'


노여운 작 '머무르다 2'

오지호미술상 한희원과 젊은 영혼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전시장을 둘러보며 들었던 단상이다. 작가의 예술 궤적은 그가 추구해온 작품 세계에 따라 다채롭게 변주된다. 스펙트럼이 넓은 작가일수록, 대작에 몰두해온 작가일수록 작품은 역동적이며 특유의 깊이를 발한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에서 진행 중인 '한희원과 젊은 영혼들의 만남'전. 지난달 30일 개막해 오는 4월 12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한희원 작가 외에도 젊은 작가 4인의 작품을 함께 볼 수 있는 자리다. (개막식은 3일 오후 7시)

50여 년 넘게 자신만의 화풍을 우직하게 일궈 온 한희원은 문화예술의 보고(寶庫)인 양림동이 배출한 우리 시대의 예술가다. 어느 공간에서 마주해도 한희원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의 그림은 깊이와 서정, 철학과 사색의 흔적이 오롯이 투영돼 있다.

2025 오지호미술상 수상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한 작가 외에도 모두 4명의 젊은 작가 그림도 만난다. 지난해 오지호미술상 특별상을 받은 박성완을 비롯해 노여운, 손지원, 김용철 작가는 각각 젊은 시절의 한희원 화가 작품 주제와 연계한 그림을 선보인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명제가 환기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윤익 관장은 "살아온 시대는 다르지만 한 작가의 작품이 시공을 초월해 이 시간 어떻게 젊은 작가 작품과 공명하고 조응하는지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며 "나아가 오늘의 광주 화단의 면모를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전했다.

한 작가는 늘 현상 이면의 본질을 심미안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탐색해왔다. 예술과 사유라는 두 축은 모자라지도 넘지도 않은 절묘한 균형점을 이루어 왔는데 그것은 구도자처럼 묵묵히 작품 세계를 펼쳐온 '온유한 근기'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전시장에서 만난 한 작가는 "지난 2023년 시립미술관에서 선보였던 전시는 탄생, 죽음, 사랑, 기억, 생의 파편 등이 주제였다"면서 "이번에는 서사, 서정 풍경보다 추상적 요소를 투영해 '우리 시대 작가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야 할지' 보다 궁극적인 질문을 탐색하는 대작 위주 작품들을 그렸다"고 말했다.

그의 그림은 시대 변화와 맞물려 몇 차례 변곡점을 맞았다. 70년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존재'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포착한 장면들이 주요 소재였다. 80년대는 '구례장터', '순천 아랫장' 등처럼 민중미술에 기반한 소시민들 삶을 핍진하게 구현했으며 90년대는 밤풍경, 나무, 별 등을 모티브로 한 그림에 천착했다. 당초 문학을 지망했던 그는 시적인 분위기, 문학적 요소를 작품에 가미했다.

손지원 작 '번지는 순간들'

2000년대 이후에는 사유에 초점을 맞춘 풍경을 캔버스에 담았다. 조형보다는 사유를 통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선보인 시기로 히말라야, 라다크 등을 여행하며 완성한 작품들에선 외로운 구도자의 심상과 이미지가 묻어났다.

2023년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을 계기로 그는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와 삶의 본질에 천착한 작품을 그리고 있다. 깊고 넓게 확장되면서도 변주는 여전히 지속된다. "세기말적인 징후 속에서 존재에 대한 희망과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한다"는 말에서 그가 추구하는 예술의 여정이 대략 가늠이 된다.

노여운 작가는 사라져가는 골목의 풍경을 주목한다. 사실적 풍경은 황폐한 장면이 아닌 밝고 은은한 분위기를 발한다. 노 작가는 "추억과 흔적이 묻어 있는 공간이 주는 따스함을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박성완 작가의 민중예술적인 그림은 한 작가의 '낮은 존재'에 대한 애정과 연계된다. 그는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오지호 인상주의를 숙성시키고 연구해보자는 나름의 고민의 흔적도 담았다"고 했다.

감성적 느낌을 발하는 작품을 출품한 손지원 작가는 내밀한 감정과 감각을 투사하는 방식의 작업을 전개해왔다. 손 작가는 "새벽은 시간이 교차하는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시선이 교차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며 "빛이 만들어낸 모호한 경계를 '보는 것'을 넘어 '확장하는 것'으로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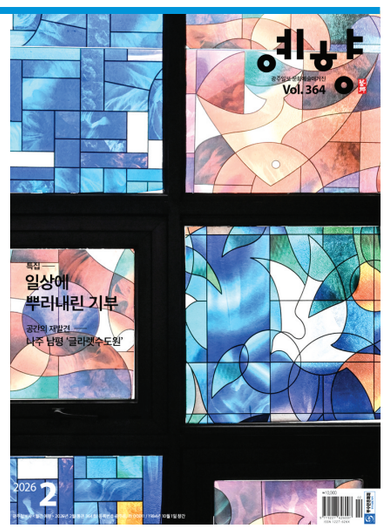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용철 화가는 내면 탐구를 응축된 시각적 형식으로 펼쳐낸다. 작가는 인식하는 대상과 세계의 실재 사이에서 고뇌하고 유동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풀어낸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립미술관은 오는 4월 12일까지 '한희원과 젊은 영혼들의 만남'전을 펼친다. 한 작가의 그림 '생의 파문' 앞에서 포즈를 취한 노여운 작가, 박성완 작가, 한희원 작가, 손지원 작가. (왼쪽부터)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2월호

예향



나눔의 오늘 '일상에 뿌리내린 기부' '공간의 재발견' 나주 글라렛수도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나눔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2월호는 '일상에 뿌리내린 기부'를 특집으로, 거창한 결심이 아닌 습관처럼 이어지는 나눔의 오늘을 조명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소액·일상·참여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기부 트렌드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나눔의 풍경을 살펴본다. '기부는 이벤트가 아닌 나누고 싶은 마음'을 통해 달라진 기부 인식과 실천 방식을 짚고, 연예인과 팬덤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부 문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을 응원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개인의 선택에서 시작된 작은 나눔이 사회와 지역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따라간다.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느린 여행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2월호 남도투어의 테마는 '겨울의 끝자락, 느리게 걷는 남도'. 차가운 계절의 끝에서 만나는 남도의 풍경과 여백은 걷는 이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다. 산과 바다가 맞닿는 길 해남 달마고도, 겨울이 깊어지는 곳 순천만 습지, 강 따라 흐르는 일상 순천 동천수변공원, 차밭 사이에서 만나는 겨울 낭만 보성 옛 차밭길까지 속도를 낮춘 걸음으로 남도의 자연과 마주하며 여행이 주는 쉼의 의미를 되새긴다.

'공간의 재발견' 코너에서는 나주 남평의 글라렛수도원을 찾았다. 빛과 색이 교차하는 스테인드글라스, 평온한 느낌의 성당 내부 등 종교적 기능을 넘어 일상의 사유와 쉼을 품은 공간의 얼굴을 담아낸다.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공간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위로를 건네는지 살펴본다.

'남도 체험로드'는 강진으로 향한다. 다산의 향기와 강진만의 생태, 고려청자의 맥을 잇는 고려청자박물관, 한국인의 미감을 품은 한국민화뮤지엄을 따라 남도의 역사와 예술을 두루 만난다. 세 마을의 시간을 품은 한옥카페 세연당에서는 남도의 정서와 일상이 어우러진 공간의 매력을 전한다.

연재 '복합문화공간, 도시의 미래가 되다'에서는 오스트리아 빈의 문화지구 비엔나 뮤지엄콰르티에(MQ)를 조명한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대규모 문화공간이 도시의 일상과 어떻게 호흡하며 새로운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지 살펴본다. '글로벌 현대미술의 현장' 코너에서는 '2025 상하이 아트위크'를 통해 세계 미술시장의 흐름과 동시대 미술의 방향을 짚어본다.

이밖에 해외문화기행으로 떠나는 퀼른 루드비히 미술관, 2026년을 앞두고 주목할 전시와 공연 미리 보기, 2026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인터뷰, 키워드로 읽는 광주·전남 미술사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담았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시향이 들려주는 브람스 '두 번째 작품'

'두 번째'라는 숫자에는 늘 1번의 그림자와 그 너머를 향한 결단이 함께 담긴다. 한 번의 성취 이후 다시 써 내려가야 했던 음악, 그 긴장과 해방의 순간이 무대 위에서 되살아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403회 정기연주회 'Nr.2'를 연다. 이번 연주회는 요하네스 브람스가 남긴 '두 번째 작품들에 담긴 예술적 전환과 완숙미를 조명하는 무대다.

지휘는 광주시향 상임지휘자 이병욱이 맡는다. 대작의 부담을 넘어 보다 자유롭고 균형 잡힌 음악 언어로 나아간 브람스의 면모를 집중 조명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공연 1부에서는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들려준다. 이 작품은 대규모 편성과 네 악장 구성으로, 흔히 '피아노가 더해진 교향곡'으로 불린다. 독주 악기가 오케스트라 위에 군림하기보다 하나의 서사적 동반자로 기능하며 치밀한 구조와 넓은 음악적 스케일을 함께 그려낸다.

협연자로는 피아니스트 박재홍이 나선다. 부소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로, 정교한 구조 해석과 깊은 서정성을 겸비한 연주로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아왔다. 특히 낭만주의 레퍼토리에서 드러나는 명료한 터치와 절제된 표현은 이번 협주곡에서도 인상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2부에서는 브람스 교향곡 제2번이 무대에 오른다. 밝고 온화한 정서로 '브람스의 전원'이라 불리는 작품이다. 평온한 표면 아래에는 치밀한 대위법과 고전적 형식미가 자리한다. 이 교향곡은 브람스가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교향적 언어를 확립했음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피아니스트 박재홍

광주시향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브람스의 음악 세계를 깊이있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편안한 마음으로 무대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R석 3만 원·S석 2만 원·A석 1만 원,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예스24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마당극으로…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 전통 놀이패신명, 2억4천만원 지원 '카메라타전남' 민주정신 테마 공연

광주의 정체성을 오롯이 담아낸 지역 예술단체 두 곳이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아 전국구 무대로 비상할 채비를 마쳤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마당극과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민주 정신을 테마로 한 클래식 공연이 시민들을 찾아간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 결과, 전통의 '놀이패신명'과 실력파 오케스트라 '카메라타전남'이 최종 선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모는 지역 예술 창작 기반을 다지고,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연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62개 지역에서 102개 단체가 도전장을 내밀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이 중 광주 2개 팀을 포함해 총 41개 단체만이 낙점됐다.

선정된 두 단체는 올해 각각 국비 1억2000만원에 시비 1억2000만원을 더해 총 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 사업은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협력이 의무화되는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1982년 창단 이후 광주 마당극의 맥을 이어온 '놀이패신명'은 이번 사업을 통해 'K-마당극'의 세계화를 노린다.

'놀이패신명'은 빛고을시민문화관과 손잡고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모티브로 한 창작 마당극을 기획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1980년 오월의 아픔을 현재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극장으로 간 광장, 광장이 된 극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창단해 탄탄한 연주력으로 지역 클래식 저변을 넓혀온 '카메라타전남'은 클래식 선율에 광주의 혼을 싣는다.

놀이패 신명의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한 장면. 〈광주시 제공〉

광주예술의전당과 협력해 '조화(Harmony)'를 주제로 한 6편의 기획 공연을 준비했다. 특히 '김봉섭 작곡가-민주', '정현수 작곡가-무등' 등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해 광주의 정체성을 형상화한 창작곡을 발표하며, 팝스 콘서트와 인문학 콘서트 등 시민 참여형 무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